



서울 학원

# KOREYS TILI

C2



# SEUL

A. Tulanov





## | 제 1 과 | 취업

### 문법: 던

Fe'l yoki sifatga qo'shilib, o'tgan zamonni bildiradi. O'zbek tiliga -gan deb tarjima qilinadi.

A: 가방이 멋있네요. 새로 산 가방이에요?

B: 아니요, 작년부터 들고 다니던 거예요.

A: 어디 가세요?

B: 공항예요. 중국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한국에 온다고 해서요.

####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것은 고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먹은, 먹던) 음식이에요

(1) 조금 전까지 (작성한, 작성하던) 서류를 끝까지 작성해야 해요

(2) 사무일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 하던) 일입니다.

(3) 지난 주부터 (기다린, 기다리던) 편지가 도착했어요.

(4)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잘 안 (들은, 들리던) 한국어가 요즘에는 잘 들려요

####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운동화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작년부터 신던 운동화예요. (작년부터 신다/운동화다)

(1) 가: \_\_\_\_\_? (전에 일하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다)

나: 영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2) 가: 집들이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나: 서울에서 일할 때\_\_\_\_\_. (같이 근무하다/사람을 초대했다)

(3) 가: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고향에서\_\_\_\_\_. (가장 친하게 지내다/친구이다)

(4) 가: 친구 기분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나: 어제 3 년 동안\_\_\_\_\_.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 문법: 기 위해서

Fe'lga qo'shilib, maqsadni ko'rsatadi va O'zbek tiliga uchun deb tarjima qilinadi.

Otga qo'shilganda 을/를 위해(서) shaklida qo'shiladi.

- 오늘 회식은 신입 사원의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공항이나 호텔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고향에 돌아가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국에 오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다

→ 한국에 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어요.

(1) 한국에서 취업하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 \_\_\_\_\_.

(2) 사무직으로 일하다/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 \_\_\_\_\_.

(3)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 \_\_\_\_\_.

(4) 나중에 통역 일을 하다/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 \_\_\_\_\_.

###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요즘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요?

나: 요즘 너무 살이 찼 것 같아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살을 빼다)

(1) 가: 요즘 왜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나: \_\_\_\_\_.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다)

(2) 가: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나: \_\_\_\_\_.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다)

(3) 가: 한국에서 취직할 거라고 했죠?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나: \_\_\_\_\_. (대기업에 지원하다)

(4) 가: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나: \_\_\_\_\_. (신제품을 개발하다)

## 듣기

면접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1

- 1)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습니까?
- 2)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맞게 써 넣으세요.

호텔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업 무: 1) \_\_\_\_\_

교대 횟수: 2) \_\_\_\_\_

근무 조건: 월 160 만원

지원 자격: \_\_\_\_\_ 영어 능통자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제출 마감: 20XX 년 7 월 14 일까지

3)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① 에바는 무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 (      )
- ② 에바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한다. (      )

## 읽기

다음 구인 광고를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YAM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 ○ 명

지원 자격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영어 강의 경력

1 년 이상인 자한국어 능통자 우대

근무 조건 : 주 4 일 근무오전 7:00~10:00, 오후 5:00~10:00 근무의료보험 가입

급 여 : 월 200 만원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시강, 면접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여권 사본서류

제출 마감 : 20XX 년 8 월 17 일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서울시 종로구 YAM 영어학원 4 층 접수처)

1) 위의 강사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메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 ② 에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 ③ 에릭: 한국에서 영어를 1 년 동안 가르쳤다.

2)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여기에 취직하면 1 주일에 4 일 일한다. (       )
- (2)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한다. (       )

## 한국 사회와 문화

# 한국의 면접 문화

어느 나라든지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은 빼 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면접 과정은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만의 면접 문화를 꼽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면접관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보다 그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선으로 본다. 따라서 자기의 요구 사항만 늘어놓는 것보다는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국의 회사 문화는 상하 관계가 엄격하므로윗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다.

### ○ 이렇게 하세요!

복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으세요.  
면접관에게 목례를 하세요.  
시선은 15° 아래를 보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세요.  
질문에는 요점을 말하세요.

### ✕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청바지를 입지 마세요.  
입으로만 인사하지 마세요.  
면접관의 눈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껌을 씹지 마세요.  
다리를 떨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지 마세요.

## Qo`shimcha mashqlar

1. '던'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안 봐요? (재미있게 보다)

나: 네, \_\_\_\_\_드라마가 지난주에 끝나 버렸거든요.

2) 가: 아니한테 장난감을 많이 사 줬나 봐요. (친구 아이가 가지고 놀다)

나: 아니에요. \_\_\_\_\_ 장난감을 받은 거예요.

3) 가: 이 팝송 정말 좋지요? (어릴 때 자주 듣다)

나: 네, \_\_\_\_\_ 팝송이에요.

2. '던'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이 커피 마셔도 돼요? (그건 제가 마시다 / 커피이다)

나: \_\_\_\_\_ 그건 제가 마시던 커피니까 새로 한 잔 타 드릴게요.

2) 가: 이 시간에 밥을 드세요? (아이가 먹다 / 밥이다)

나: 네, \_\_\_\_\_ 조금 남아서 먹고 있어요.

3) 가: 자기에 열쇠가 떨어져 있네요! (아키라 씨가 찾다 / 열쇠이다)

나: 조금 전에 \_\_\_\_\_ 저기 있었네요.

3. '을/를 위해(서)' 나 '-기 위해(서)' 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A: 매일 아침에 조깅을 해요?

B: 네, \_\_\_\_\_ 저는 매일 아침에 조깅을 해요.

2) A: 와, 맛있겠어요. 무슨 날이에요?

B: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서 \_\_\_\_\_ 내가 만들었어요.

3) A: 왜 한국말을배워요?

B: 한국 회사에 \_\_\_\_\_ 한국말을배워요.

4) A: 왜 한국에 왔어요?

B: 한국 친구를 \_\_\_\_\_ 왔어요.

Izoh

[illegible]



## | 제 2 과 | 여행

### 문법:(으)ㄴ 겸

Fe'lga qo'shilib, bir qancha harakatni qilishini ayt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 deb, birato'la ... niham ....deb" tarjima qilish mumkun

A: 이번에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B: 한국말도 배울 겸 친척들도 만날 겸 해서 왔습니다.

A: 휴가에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B: 여행도 할 겸 친구도 만날 겸 해서 부산에 다녀왔어요.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국말을 배우다 / 일을 하다 / 한국에 오다

→ 한국말도 배울 겸 일도 할 겸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1) 인사를 하다 / 선물을 드리다 / 찾아오다

→ .....

(2) 관광을 하다 / 휴식을 취하다 /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

→ .....

(3) 한국어를 배우다 / 친구를 사귀다 / 다문화 센터에 다니다

→ .....

(4) 돈을 벌다 / 한국어 연습을 하다 /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 .....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지금 이 시간에 밖에 왜 나가요? (산책을 하다/물건을 사다)

나: 산책도 할 겸 필요한 물건도 살 겸 해서 나갔다가 오려고요.

(1) 가: 주말마다 등산하세요? (바람을 쐬다/운동을 하다)

나: .....

(2) 가: 다음 주에 고향에 가신다고요? (가족을 만나다/회사 일을 보다)

나: .....

(3) 가: 요즘도 저녁마다 운동하세요? (살을 빼다/기분전환을 하다)

나: .....

(4) 가: 컴퓨터로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휴가 때 필요한 것을 사다/이메일을 확인하다)

나: .....

## 문법: (이)라도

Otga qo`shilib, nimadir mukammal bo`lmasada, qabul qilsa bo`ladigan darajadaliği bildiradi. O`zbek tiliga "bo`lsa ham" deb tarjima qilish mumkun.

A: 회사 일이 바쁜데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B: 길게 시간이 안 되면 1 박 2 일이라도 갑시다.

A: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간 되면 같이 식사 할래요?

B: 식사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차라도 한 잔 할까요?

### 1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휴가철이라서 비행기 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나: 그럼 배편이라도 알아보세요. (배편)

(1) 가: 늦어서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나: 다음부터는 늦으면 \_\_\_\_\_ 하세요. (전화)

(2) 가: 휴가철이라서 부산에 있는 호텔은 예약하기가 힘드네요.

나: 그럼 \_\_\_\_\_ 알아보세요. (민박)

(3) 가: 죄송하지만 그 날은 온돌방밖에 없습니다.

나: 침대방이 없으면 \_\_\_\_\_ 예약해 주세요. (온돌방)

(4) 가: 이번 주 토요일 에릭 씨의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아요.

나: 그럼 \_\_\_\_\_ 보내세요. (선물)

### 2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라면                  늦게                  전화                  숙제                  가까운 곳

가: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나: 밥은 없는데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1) 가: 수업 끝나면 예습, 복습도 하세요?

나: 아니요,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_\_\_\_\_ 열심히 해야겠어요.

(2) 가: 저는 내일 6 시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나: 그럼 \_\_\_\_\_ 오세요.

(3) 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봐요?

나: 아니요,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_\_\_\_\_ 자주 해야겠어요.

(4) 가: 여행을 한 번 다녀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네요.

나: 그럼 \_\_\_\_\_ 한 번 다녀오세요

## 듣기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2

1) 각 숙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펜션에 대한 것이면 ‘펜’, 유스 호스텔에 대한 것이면 ‘유’, 민박에 대한 것이면 ‘민’을 쓰십시오.

- ① 조용하고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다. (       )
- ② 다른 여행객과 방을 함께 써서 친구를 사귄 수 있다. (       )
- ③ 그 지역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다. (       )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쿤은 에릭과 함께 여행을 갈 것이다. (       )
- (2) 쿤은 펜션에서 묵을 것이다. (       )
- (3) 쿤은 처음에 유스 호스텔을 예약하려고 했다. (       )

## 읽기

다음 여행 광고를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코레일이 드리는 이색 기차 여행, 바다를 보며 달리는 정동진 바다 열차!  
정동진'은 서울에서 똑바로 동쪽으로 가면 있는 바닷가라 해서 이름 붙여졌으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차역인 '정동진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90 년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현재는 동해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로 특히  
젊은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기간 : 무박 2 일

출발 날짜 : 11 월 1, 15 일

출발 장소 : 청량리역

출발 시간 : 청량리역 22:32 출발, 청량리역 23:00 도착

가 격 : 72,000 원 (1 인)

- 열차 내 석식 제공
- 야경을 보면서 기차에서 와인 한 잔! 와인 제공
- 정동진 해돋이 관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일정표가 있습니다.

1) 여행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숙박 예약을 해야 한다.

② 한 달에 두 번 출발한다.

③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역으로 돌아온다.

2)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열차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

(       )

(2) 정동진에서는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       )

## 한국 사회와 문화

# 주말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



최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행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 또는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 혼자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 등, 여행의 모습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캠핑 여행은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TV 프로그램 또한 캠핑을 주제로 한 '1박 2일', '아빠, 어디가', '힐링 캠프' 등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Qo`shimcha mashqlar

1. ‘-(으)ㄴ점’ 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수영씨, 백화점에 가려고 해요? (구경도 하다 / 친구 생일 선물도 사다)

나: 네, \_\_\_\_\_ 가려고 해요. 같이 갈래요?

2) 가: 집까지 걸어서 갈 거예요? (소화도 시키다/ 거리 구경도 하다)

나: 네, 소화가 안 돼서 \_\_\_\_\_ 걸어가려고 해요.

3) 가: 거실의 소파를 옮겼어요? (분위기도 바꾸다/ 청소도 하다)

나: 네, \_\_\_\_\_ 위치를 바꿨어요.

4) 가: 한국 경제 신문을 보고 있어요? (경제 공부도 하다/ 한국어 공부도 하다)

나: 네, 제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_\_\_\_\_ 보고 있어요

5) 가: 노래하기 전에 물을 많이 마세요? (긴장도 풀다 / 목도 부드럽게 하다)

나: 네, \_\_\_\_\_ 많이 마세요.

2) ‘-(이)라도’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이번 달 용돈을 다 써 버려서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요. ( 같은 반 친구)

나: 그럼, \_\_\_\_\_ 빌려달라고 해 보세요.

2) 가: 금연석은 모두 찔고 흡연석만 빈자리가 있는데요. (흡연석 자리)

나: 할 수 없지요. 그럼 \_\_\_\_\_ 주세요.

3) 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할 시간 없어서 정말 아쉬워요 (식사)

나: 그래도 자야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_\_\_\_\_ 드셔 보세요.

4) 가: 저는 금방 식사를 하고 와서 배가 부르니까 어서 드세요.

나: 그래도 자야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_\_\_\_\_ 드셔 보세요.

5) 가: 수영씨가 시간이 없어서 먼 데는 못 가겠대요. ( 가까운 데)

나: 그럼, \_\_\_\_\_ 다녀옵시다.

Izoh

[illegible]

## | 제 3 과 | 명절

### 문법: 아/어 놓다

Fe'lga qo'shilib, biror ishni har ehtimolga qilib qo'yishni bildiradi. O'zbek tiliga ib qo'ymoq deb tarjima qilinadi.

- 다음 달에 고향에 갔다 오려고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았어요.
- 어머니 생신 선물을 보내려고 인삼을 사 놓았어요.
- 추석 전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미리 장을 봐 놓아야겠어요.
-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하니까 새 돈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다

→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1) 차례를 지내려고 미리 장을 보다

→ \_\_\_\_\_.

(2) 세뱃돈을 주려고 새 돈으로 바꾸다

→ \_\_\_\_\_.

(3) 부럼을 깨려고 호두를 사다

→ \_\_\_\_\_.

(4) 물을 끓이려고 가스 불을 켜다

→ \_\_\_\_\_.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내일 집들이를 하지요? 음식 준비는 다 했어요?

나: 찌개만 빼고 거의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다)

(1) 가: 제가 우리 집 창문을 \_\_\_\_\_ 나온 것 같아요. (열다)

나: 알겠어요. 제가 닫을게요.

(2) 가: 혹시 미역국 끓이는 방법 알아요?

나: 걱정 마세요. 끓이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_\_\_\_\_. (찾다)

(3) 가: 다음 달에 결혼하시지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나: 네, 준비를 일찍 시작해서 다 \_\_\_\_\_. (끝내다)

(4) 가: 영철 씨,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나: 네, 회의 자료도 다 작성해서 \_\_\_\_\_. (복사하다)

## 문법: (으)ㄴ/는 데다가

Fe'l yoki sifatga qo`shilib, qo`shimcha ma'lumot berish uchun ishlatiladi. O'zbek tiliga shuningdek, qo`shimchasiga deb tarjima qilish mumkun.

- 영철 씨는 운동도 잘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도 잘 도와 줘서 인기가 많아요.
-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 요즘 회사 일도 바쁜 데다가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해서 정신이 없어요

###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춤도 잘 춰요

→ 그 가수는 노래도 잘하는 데다가 춤도 잘 춰요.

1) 철수 씨는 한국어를 잘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해요

→ \_\_\_\_\_.

(2) 오늘은 비가 와요.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요

→ \_\_\_\_\_.

(3) 명동은 가게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값도 싸요

→ \_\_\_\_\_.

(4) 기차는 자리가 편해요. 그리고 경치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아요

→ \_\_\_\_\_.

###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나: 제주도에 가 보세요.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다운 데다가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경치도 아름답다/ 맛있는 음식도 많다)

(1) 가: 왜 그렇게 장을 일찍 봐요?

나: \_\_\_\_\_. (명절 전에는 차도 막히다/ \_\_\_\_\_ )

(2) 가: 명절에 부산에 갈 때 뭘 타고 가면 좋을까요?

나: KTX 를 타세요. \_\_\_\_\_. (속도도 빠르다/ \_\_\_\_\_ )

(3) 가: 이번에 어머니 생신인데 뭘 사드리면 좋을까요?

나: 홍삼이 어때요? \_\_\_\_\_. (홍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다/ \_\_\_\_\_)

(4) 가: 아이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나: 캠핑을 가 보세요. \_\_\_\_\_. (비용도 많이 안 들다/ \_\_\_\_\_ )



## 듣기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3

1) 베트남과 한국의 설날 풍습 중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설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 ② 세배를 한다.
- ③ 이웃이나 친척과 덕담을 주고 받는다.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베트남의 설날은 한국과 같은 날이다. ( )

(2) 베트남과 한국 모두 설날에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 )

## 읽기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명절 음식

여러분 고향에서는 보통 명절에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는 설날에 먹는 '떡국'을 들 수 있습니다. 떡국은 흰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음식입니다. 가래떡의 긴 모양은 무병장수를 뜻하고 흰색은 한 해의 때를 벗고 깨끗해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해서 '떡국 몇 그릇이나 먹었어?'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추석에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으로는 송편이 있습니다. 송편은 한 해 농사 지은 햅쌀과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으로 1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돌봐 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 밖에도 음력 1 월 15 일인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 귀밝이술 등을 먹습니다. 이 가운데 부럼은 이것을 먹으면 1 년 동안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챙겨 먹었습니다. 또 부럼은 먹을 때 직접 이빨로 깨서 먹는데 이렇게 해야 한 해 동안 치아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4 절기의 마지막 날인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 먹고 끓인 팔죽을 집 대문 등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팔의 붉은 색이 집 안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준다고 하여 조상들이 지키던 풍습입니다.

1) 각 명절에 먹는 음식과 의미를 맞게 연결하세요

송편	• •	설날	• •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부럼	• •	추석	• •	1 년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떡국	• •	대보름	• •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팔죽	• •	동지	• •	가래떡처럼 무병장수한다

## 차례 상에 음식 놓는 법



한국의 명절에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차례 상에 음식을 차릴 때는 음식을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 규칙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좌포우혜**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다.

**조율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의 순으로 놓는다.

## Qo`shimcha mashq

1. '아/어 놓다'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아침에 보니까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요. (고치다)

나: 이사씨가 나간 사이에 마크씨가 \_\_\_\_\_

2) 가: 이거 웬 커피예요? (타다)

나: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제가 방금 \_\_\_\_\_ 커피예요.

3) 가: 여보, 윤주는 벌써 나간 거예요? (청소하다)

나: 네, 방을 \_\_\_\_\_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 버렸어요.

4) 가: 왜 이렇게 집이 추워요? (끄다)

나: 제가 외출할 때는 난방을 \_\_\_\_\_ 그래요.

5) 가: 여보, 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리다)

나: 아까 낮에 아이들이 벽에 그림을 \_\_\_\_\_ 그래요.

2. '-(으)ㄴ/는 데다가'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수진씨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다 / 성격도 명랑하다)

나: 맞아요. \_\_\_\_\_ 친구들이 좋아해요.

2) 가: 그 책이 어려워요? (글씨가 작다 / 한자도 많다)

나: 네, \_\_\_\_\_ 어려워요.

3) 가: 대학로에 자주 가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 공연도 많이 하다)

나: 네, \_\_\_\_\_ 자주 가요.

4) 가: 요즘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해요. (날이 건조하다 / 비도 오랫동안 안 오다)

나: 네, \_\_\_\_\_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illegible]

## | 제 4 과 | 생활 정보

### 문법: 피동사-majhul nisbat

Koreys tilida majhul nisbat fe'lga -O|, -히, -리, -기 qo'shish bilan yoki -아/어/여지다 qo'shish bilan yasaladi.

•어제 창문을 열고 자서 모기한테 물렸어요. •기사님, 그 길은 항상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 주세요. •칠판에 있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1 다음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보기와 같이 말하세요

바꾸다/바뀌다 보다/보이다 팔다/팔리다 닫다/닫히다 쌓다/쌓이다 풀다/풀리다

가: 예바 씨가 전화를 안 받네요.

나: 예바 씨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1) 가: 요즘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자꾸 피로가 쌓여요 .

나: 과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셔 보세요. 피로가\_\_\_\_\_ .

(2) 가: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아요?

나: 이게 요즘 가장 잘\_\_\_\_\_ 제품입니다.

(3) 가: 서울 야경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요?

나: 서울 타워에 올라가면 서울이 한눈에 다\_\_\_\_\_.

(4) 가: 에릭 씨, 떡볶이 사러 갔다가 왜 그냥 와요?

나: 떡볶이 집 문이\_\_\_\_\_.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미안해요. 길이 많이 막혀서요. (막다)

(1) 가: 마음에 드시는 옷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저기에\_\_\_\_\_ 옷 좀 보여 주세요. (걸다)

(2) 가: 어제 잠 못 잤어요? 왜 자꾸 하품을 해요?

나: 어젯밤에 2 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_\_\_\_\_ . (듣다)

(3) 가: 요즘 예바 씨가 안\_\_\_\_\_? (보다)

나: 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즘 바빠요.

(4) 가: 이 앞 고기집이 없어졌네요?

나: 네, 얼마 전에 샐러드바로\_\_\_\_\_ . (바꾸다)

## 문법: 아/어 있다

Fe'lga qo'shilib, bir holat bajarilib hozirgi holatda o'zgarishsiz davom etayotganligini bildiradi. 고 있다 – davom etayotganligini bildiradi.

A: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20 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요.

B: 그럼 먼저 커피숍에 들어가 있을게요.

A: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장 체험을 가는 것 알죠?

B: 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지를 봤어요.

###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상호 씨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앉다)

1) 현관에 전단지가\_\_\_\_\_. (붙다)

(2) 에릭 씨가 창문 앞에\_\_\_\_\_. (서다)

(3)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_\_\_\_\_. (걸리다)

(4) 하산 씨가 병원 침대에\_\_\_\_\_. (눕다)

### 2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말하세요

고양이 / 소파 위 / 앉다

가: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나: 고양이가 소파 위에 앉아 있어요.



(1) 러시아 전통 의상

\_\_\_\_\_

(2) 냉장고

\_\_\_\_\_

(3) 러시아 전통 인형

\_\_\_\_\_

(4) 소피아 씨

\_\_\_\_\_

## 듣기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4

1) 블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광고를 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 많다.
- ② 직접 경험한 것을 네티즌이 글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다.
- ③ 블로그에는 좋은 점만 쓰여 있다.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한상호와 쿤은 함께 여행을 갈 것이다. ( )
- (2) 쿤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행을 가려고 한다. ( )

## 읽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고민과 조언에 대한 글을 읽고 답해 보세요

Q. 위층에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어서 괴로워요.저희 위층에서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우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해 봤지만 그 때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드시군요. 층간 소음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자꾸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 아마 더 감정이 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겁니다. 과일을 깎아서 찾아가거나 웃는 얼굴로 조금 조심해 줄 것을 부탁하면 위층 사람들도 더 미안해서 조심할 겁니다

Q. 요즘 자도 자도 졸리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23 살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한 시간 반쯤 운동하고 열 시 반만 되면 잠 들어서 아침 6 시쯤 일어납니다.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낮에도 피곤하고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졸려요.

A.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동을 평소보다 조금 적게 해 보시고 휴식 시간과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보세요. 낮에 시간이 되면 30 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 문제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 첫 번째 고민에 대해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다.
- ② 경비실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 ③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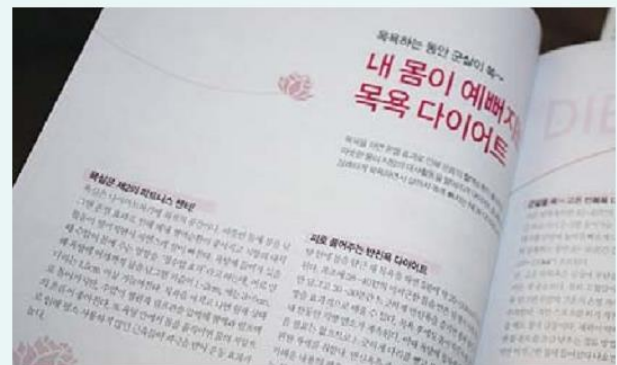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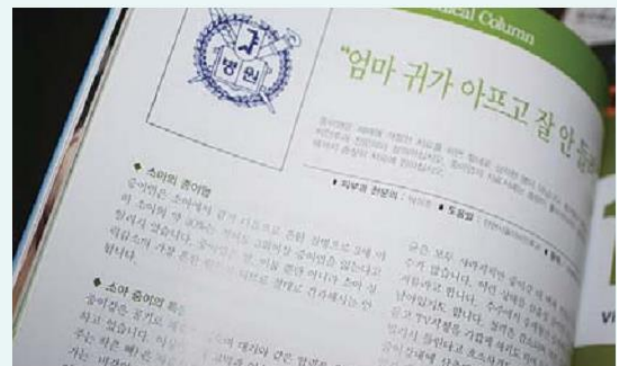
2) 두 번째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 )

(2) 낮잠은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한국 사회와 문화

# 지역생활 정보지



여러분 집의 우편함이나, 아파트 1층 현관 앞에 쌓여 있는 '지역생활 정보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활 정보지에는 우리 지역의 먹거리나 맛집 등을 소개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을 때 이런 생활 정보지를 보면서 배달 시켜 먹을 음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무언가 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집 근처에 있는 수리점에 전화해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 육아 정보 등 유용한 정보들이 지역생활 정보지에는 실려 있습니다.



## Qo`shimcha mashqlar

1. 알맞은 단어를 찾아 피동으로 바꿔 대화를 완성하세요.

잠그다      쓰다      걸다      막다      풀다      보다

1)    가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나    문이 \_\_\_\_\_ 지금 열쇠가 없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2)    가    민수씨, 운동화 끈이 \_\_\_\_\_ .

      나    고마워요. 다시 묶어야겠어요.

3)    가    저기 벽에 \_\_\_\_\_ 있는 사진은 누구 사진이에요?

      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 사진이에요.

4)    가    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이 \_\_\_\_\_?

      나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가    칠판에 무엇이 \_\_\_\_\_ 있어요?

      오늘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안 \_\_\_\_\_ .

      나    오늘 배울 문법이에요. 이따가 제 공책을 보여 줄게요.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칠판에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_\_\_\_\_ 있습니다. (쓰다)

2)    창문이 \_\_\_\_\_ 있습니다. (열다)

3)    책상 위에는 케이크가 \_\_\_\_\_ 있습니다. (놓다)

4)    케이크에 촛불이 \_\_\_\_\_ 있습니다. (켜다)

5)    왕징 씨는 열쇠를 \_\_\_\_\_ 있습니다. (찾다)

6)    열쇠가 의자 밑에 \_\_\_\_\_ 있습니다. (떨어지다)

7)    티루엔 씨는 지금 카드를 \_\_\_\_\_ 있습니다. (쓰다)

- Izoh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 제 15 과 | 소식과과 알림

### 문법: 다고 하다

Fe'l yoki sifatga qo'shilib, Darak ko'chirma gap yasash uchun ishlatiladi. O'zbek tiliga 'deb aytmoq' deb tarjima qilinadi. ㄴ/는다고 하다 – hozirgi zamonda fe'lga qo'shiladi, sifatga -다고 하다, otga (이)라고 하다 qo'shiladi.

- 한상호 과장이 축구 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 모임 시간은 토요일 오전 열 시라고 했어요.

1 보기와 같이 간접화법으로 바꾸세요.

“15일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접수를 시작해요.” → 15일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1) “우리 회사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해요.”

→ \_\_\_\_\_.

(2) “추석에 외국인 장기자랑 대회가 열려요 ”

→ \_\_\_\_\_.

(3) “이것은 결혼식에 초대하는 청첩장이예요”

→ \_\_\_\_\_.

(4) “제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거예요.”

→ 예바 씨가\_\_\_\_\_.

2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을 간접화법으로 바꾸어서 친구에게 전달하세요.

채원: 9 년 전에 제가 선배님한테  
고백했었 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상우: 넌 그 때나 지금이나 편안한 후배야.

채원: 그 때 선배님의 여자 친구가  
윤서선배 였다는 것을 알고  
바로포기했어요.

상우: 고맙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채원: 고마우면 뭐라도 사 주셔야죠.

상우: 좋아. 오늘은 내가 밥 살게.

가: 어제 드라마 ‘좋은 의사’ 봤어요?

나: 아니요, 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 채원하고 상우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채원이 9 년 전에  
상우한테 1)\_\_\_\_\_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2)\_\_\_\_\_ 했어요.

그러니까 상우가 그 때나 지금이나

채원은 항상 3)\_\_\_\_\_ 했어요.

나: 그 남자, 여자 친구 있지 않아요?가:

맞아요. 채원이 그 걸 알고 바로

4)\_\_\_\_\_ 했어요. 상우가 채원에게

곁에 있어줘서 5)\_\_\_\_\_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자기가 6)\_\_\_\_\_ 했어요.

## 문법: 냐고 하다

Fe'l yoki sifatga qo'shilib, so'roq ko'chirma gapni yasaydi.O'zbek tiliga deb so'ramoq deb tarjima qilinish mumkun.

- 사장님이 저에게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 어머니가 저에게 요즘 한국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 봤어요.
- 고향 친구들은 언제 고향에 돌아올 거냐고 물어 봐요

1 보기와 같이 간접화법으로 바꾸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했어요

(1) 요즘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가 뭐예요?

→ \_\_\_\_\_

(2) 말하기 대회는 언제까지 접수해야 해요?

→ \_\_\_\_\_

(3) 다음 한국어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 \_\_\_\_\_

(4)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 \_\_\_\_\_

2 어제 있었던 일을 간접화법으로 바꾸어서 친구에게 전달하세요.

바야르: 한상호 과장님이 축구 동호회 회장님 이시죠?

한상호: 네, 그런데요.

바야르: 저도 축구 동호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언제 모여요?

한상호: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요.

바야르: 회비도 있어요?

한상호: 회비는 한 달에 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야르 씨는 축구를 잘하세요?

바야르: 아니요, 그냥 좋아해요

가: 바야르 씨, 어제 회사 게시판에서 한상호 과장님이 축구 동호회 회원 모집한다는 안내문 봤어요?

나: 네, 게시판은 못 보고 한상호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축구 동호회가 언제 1) \_\_\_\_\_

\_\_\_\_\_ 물어 보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에 2) \_\_\_\_\_ 했어요.

가: 회비도 있다고 했어요?

나: 제가 회비가 3) \_\_\_\_\_ 물어 보니까 4) \_\_\_\_\_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5) \_\_\_\_\_ 물어 봐서 저는 그냥 6) \_\_\_\_\_ 했어요.

## 듣기

대화를 잘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05

1) 잘 듣고 청첩장의 빈 칸에 알맞게 쓰십시오.

<p>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은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권춘상                      의 장남 희영 김진희 김광수                      의 장년 세희 박용숙 2012 년 ____월 ____일(음 4.27) ____요일 오후 ____시 ____예식장 A 동 ____층 크리스탈</p>
--	--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바야르는 결혼 소식을 알고 있었다. (      )

(2) 회사 사람들은 성민과 유진이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 읽기

다음 이메일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바야르 씨, 저 에릭이에요. 지금 잠깐 고향에 가 있다면서요? 저는 바야르 씨에게 용건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선생님이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10 월 23 일 화요일에 현장 체험 학습이 있다고 해요. 장소는 아침고요 수목원이고요. 센터에서 10 시에 출발해서 오후 3 시에 다시 센터에 도착할 거라고 해요. 점심은 센터에서 단체로 주문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현장 학습을 갈 사람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선생님께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바야르씨가 전에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지요? 우리 반 친구들도 모두 간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요.그럼 몸 건강히 잘 돌아오시고요. 더 궁금한 점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도록 하세요

1) 이 글을 누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2) 이 사람은 이 글을 왜 썼습니까?

① 현장 학습에 대해 알려 주려고 ②토요일에 만나고 싶어서 ③ 같이 점심을 먹고 싶어서

3) 이 사람이 알려 준 내용에 맞게 다음에 써 넣으십시오.

<현장 체험 학습 안내>

일시: (      )월 (      )일 (      )요일      출발 시간: (      )시, 도착시간: (      )시

장소:                      점심 식사:

4)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에릭은 오늘 다문화 센터에 오지 않았다. (       )

(2) 에릭은 이 현장 학습 장소에 가고 싶어 했다. (       )

## 한국 사회와 문화

# 소식을 전하는 방법의 변화



예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어 전했다. 그러나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식을 전하는 방식도 이메일,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최근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많은 사람과 문자와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 받고 있다. 특히 이 기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Qo`shimcha mashqlar

1.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 1) 윤정 씨는 매운 음식을 안 \_\_\_\_\_ . (먹다)
- 2) 윤정 씨가 많이 \_\_\_\_\_ . ( 아프다)
- 3) 민희 씨 남자 친구는 \_\_\_\_\_ . (대학생)
- 4) 그 사람이 성준 씨 \_\_\_\_\_ . (친구)
- 5) 선생님이 3 년 전에 중국에서 \_\_\_\_\_ (살다)
- 6) 민정 씨가 일을 \_\_\_\_\_ (그만두다)
- 7) 마이클 씨는 5 년 전에 영어 \_\_\_\_\_ (선생님).
- 8) 성민 씨는 옛날에 \_\_\_\_\_ (의사)
- 9) 이번 겨울에 한국에 눈이 많이 \_\_\_\_\_ ( 오다)
- 10) 한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눈이 많이 \_\_\_\_\_ ( 오다)
- 11) 의사 선생님이 8 시간 이상 자면 건강에 안 \_\_\_\_\_ (좋다)
- 12) 제 친구가 한국에 가고 \_\_\_\_\_ (싶다)

2. '냐고 하다' 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 1) 의사님이 어디가 \_\_\_\_\_ (아프다).
- 2) 영화가 \_\_\_\_\_ (재미있다)
- 3) 한국에 온 지 얼마나 \_\_\_\_\_ ( 되다).
- 4)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언제까지 \_\_\_\_\_ (접수하다).
- 5) 수지 씨가 매운 음식을 안 \_\_\_\_\_ (먹다).
- 6) 엄마가 어디에 \_\_\_\_\_ (가다).
- 1) 여기가 \_\_\_\_\_ (어디).
- 2) 남자 친구가 \_\_\_\_\_ (대학생)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20 evenly spaced horizontal lines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lines are thin and black, set against a plain white background.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 | 제 6 과 | 소식과 알림

문법: (으)ㄴ 테니까

Fe'l yoki sifatga qo'shilib, bir ish qilinadiganligi sababli boshqa bir ish qilish so'ralganda ishlatiladi. O'zbek tiliga - ... qilinadiganligi sababli deb tarjima qilish mumkun.

A: 회사 송년회에서 할 인사말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B: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보기와 같이문장을 완성하세요

제가 밥을 사겠어요

커피를 사세요 → 제가 밥을 살 테니까 커피를 사세요

(1) 제가 청소를 하겠어요.

설거지를 하세요 → \_\_\_\_\_.

(2) 제가 과일을 깎겠어요

케이크를 자르세요 → \_\_\_\_\_.

(3) 제가 영화표를 예매하겠어요

팝콘을 사세요 → \_\_\_\_\_.

(4)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 \_\_\_\_\_.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내일 도서관에 몇 시에 갈까요?

나: 시험 기간이라서 사람이 많을 테니까 아침 일찍 갑시다. (시험 기간이라서 사람이 많다)

(1) 가: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요?

나: \_\_\_\_\_ 일찍 출발합니다. (주말이라서 차가 막히다)

(2) 가: 몇 시쯤 모임을 시작할까요?

나: \_\_\_\_\_ 7 시쯤 시작하기로 합니다. (저녁 식사를 먼저 해야 하다)

(3) 가: 이번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볼까요?

나: \_\_\_\_\_ 평일에 봅시다. (주말에 사람이 많다)

(4) 가: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되지요?

나: \_\_\_\_\_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버스는 복잡하다)

## 문법: 았/었던

Fe'l yoki sifatga qo'shib, o'tgan zamondagi qilingan ish harakatni eslagandan ishlatiladi. O'zbek tiliga -gan deb tarjima qilinadi.

A: 이번 가족 모임은 어디로 정했어요?

B: 지난주에 갔던 한식당으로 예약했어요.

A: 한국에 와서 여행한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B: 제일 좋았던 곳은 제주도예요.

###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대학생 때 갔다 / 그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 대학생 때 갔던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1) 지난번에 얘기했다 / 그 동호회에 가입했다

→ \_\_\_\_\_.

(2) 어릴 때 할머니와 찍었다 / 그 사진을 찾다

→ \_\_\_\_\_.

(3) 지난주에 부모님과 같이 갔다 / 그 한국 음식점이 맛있다

→ \_\_\_\_\_.

(4) 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봤다 / 그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 \_\_\_\_\_.

### 2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좋아하다    입다    듣다    친하다    먹다

가: 어제 에릭 씨의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나: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1) 가: 지금 나오는 노래 제목을 아세요?

나: 글썄요. 메이 씨 집에서 \_\_\_\_\_ 노래인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2) 가: 한복이 참 잘 어울리네요. 새로 샀어요?

나: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_\_\_\_\_ 한복이에요. 예쁘지요?

(3) 가: 이 음식은 이름이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나: 이건 떡볶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_\_\_\_\_ 음식이에요.

(4) 가: 오늘 메이 씨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알아요?

나: 메이 씨가 정말 \_\_\_\_\_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 듣기

쿤 씨와 상호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6

1)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한국 회사에서는 회식을 자주 한다. (       )
- (2) 쿤 씨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한다. (       )
- (3) 한국 사람들은 2 차로 노래방에 가기도 한다. (       )
- (4) 쿤 씨는 회식을 하면서 동료들과 더 친해졌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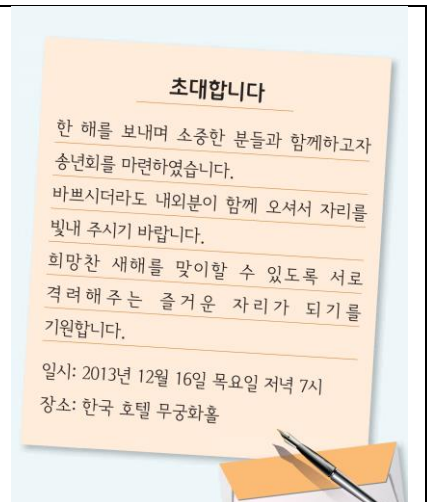
2) 한국 사람들은 회식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읽기

다음 ‘한국에서의 첫 송년회’를 읽고 답해 보세요

한국에서의 첫 송년회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일은 처음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에 참석했던 일입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 함께 한국어를 배우던 친구들과 부부 동반 송년회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참석하는 모임은 처음이라서 긴장하고 갔지만 분위기가 편안하고 모두 친절했습니다. 20 썬 정도 되는 부부가 모여서 오래간만에 고향 음식도 먹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일, 한국어를 잘 못해서 힘들었던 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일 등을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습니다. 어색해 할 줄 알았는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남편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겠지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송년회는 한국 식당에서 했습니다. (       )
- (2) 송년회에 부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       )
- (3) 송년회에서 남편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

## 한국의 회식 문화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히 직장 상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과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이다. 회식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단합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한다. 회식을 할 때 지나친 음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뉴스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회식 문화는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화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의 입장에서는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 술을 잘 못 마셔도 참석해야 하는 것,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도 2차, 3차로까지 길어지는 회식은 낯선 광경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회식 문화도 바뀌고 있다. 술자리만 이어지는 회식이 아닌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전한 회식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 Qo`shimcha mashqlar

1. '(으)ㄹ 테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1) 수영씨가 자고 있겠다. 이따가 전화합시다.

---

2) 내일은 많이 겹겠다.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어요.

---

3) 그 길은 복잡하겠다. 다른 길로 가는 게 어때요?

---

4) 시험공부하느라 힘들었겠다. 오늘은 꼭 쉬세요.

---

2. (으)ㄹ 테니까'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약을 먹었는데 계속 아프네요. (좋아지다)

나: 조금 있으면 \_\_\_\_\_ 좀 누워서 쉬세요.

2) 가: 책상을 저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무겁다)

나: 혼자 옮기기에는 \_\_\_\_\_ 제가 도와 드릴게요.

3) 가: 이번 휴가에 동해로 갈까요. 서해로 갈까요? (사람이 많다)

나: 동해는 \_\_\_\_\_ 서해로 가는 게 어때요?

4) 가: 와, 케이크가 맛있겠어요. (조금 이따가 점심을 먹다)

나: \_\_\_\_\_ 조금만 드세요.

5) 가: 경수씨가 오늘 늦게 오면 어떻게 하지요? (일찍 출발했다)

나: 오늘은 \_\_\_\_\_ 늦지 않을 거예요.

6) 가: 어제 회의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참석을 했다)

나: 저도 참석을 안 해서 몰라요. 게이코 씨가 \_\_\_\_\_

게이코 씨한테 물어보세요.

[illegible]

## | 제 7 과 | 문화 체험과 경험

문법: (으)ㄴ/는 척하다

Fe'l yoki sifatga qo'shib, haqiqatda shunaqa bo'lmasa ham, shunaqa qilib ko'rsatish ma'nosini beradi. O'zbek tiliga -likka olmoq, -dek tutmoq deb tarjima qilish mumkun.

- 잠이 깼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는 척했어요.
- 요리를 해 준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척했어요.
- 그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돈이 많은 척해요.
- 어제 길에서 넘어졌는데 창피해서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청소하기 싫어서 배가 아픈 척했어요. (아프다)

- (1) 만화책을 보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_\_\_\_\_. (공부하다)
- (2) 친구가 부끄러워할까 봐 \_\_\_\_\_. (모르다)
- (3) 모르는 사람이 벨을 눌러서 집에 사람이 \_\_\_\_\_. (없다)
- (4)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실까 봐 \_\_\_\_\_. (괜찮다)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어제 생일 파티를 잘 했어요?

나: 네,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놀라는 척 했어요. (놀라다)

(1) 가: 광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나: 그럴 땐 한국어를 \_\_\_\_\_. (못 알아듣다)

(2) 가: 메이 씨랑 왜 싸웠어요?

나: 어제 길에서 저를 보고도 \_\_\_\_\_. (못 보다)

(3) 가: 여자 친구가 만들어 준 음식이 맛있었어요?

나: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지만 여자 친구의 정성을 생각해서 \_\_\_\_\_. (맛있다)

(4) 가: 한국말을 잘 해서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안 볼 때도 있지요?

나: 네, 그럴 때는 가끔 \_\_\_\_\_. (한국 사람이다)

**문법: (으)ㄴ 뻔하다**

Fe'lga qo'shilib, qanaqadir ko'ngilsiz hodisa sodir bo'lishiga ozgina qolib, lekin sodir bo'lmaganligini bildiradi. O'zbek tiliga -ga sal qolmoq deb tarjima qilinishi mumkun.

가: 어제 문화 체험은 잘 했어요?

나: 네, 그런데 늦잠을 자서 체험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가: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다 (사고를 당하다)

→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1)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접시를 깨다)

→ \_\_\_\_\_.

(2) 친구를 도와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다)

→ \_\_\_\_\_.

(3)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졸다가 (가방을 두고 내리다)

→ \_\_\_\_\_.

(4) 친구와의 약속을 수첩에 써 놓지 않아서 (잊어버리다)

→ \_\_\_\_\_.

2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삼키다

미끄러지다

지각하다

태우다

놓치다

아이가 장난하다가 동전을 삼킬 뻔했어요

(1) 비를 피하려고 빨리 뛰어가다가 빗길에\_\_\_\_\_.

(2)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기를 굽다가\_\_\_\_\_.

(3) 자명종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다가\_\_\_\_\_.

(4) 아침에 천천히 준비를 하다가 버스를\_\_\_\_\_.



## 듣기

에바 씨와 에릭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7

1)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에바는 어제 등축제를 보고 왔다.
- ② 에릭은 메이와 함께 등축제를 보러 갈 것이다.
- ③ 서울 등축제는 해마다 청계천에서 한다.
- ④ 등축제는 매년 같은 주제로 한다.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등축제는 낮에 가도 볼 수 있다. (       )
- (2) 에릭은 오늘 저녁에 등축제를 보러 갈 것이다. (       )

## 읽기

다음 ‘템플스테이’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 템플스테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해 보았지만 생각만 하고 해 보지 못했던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템플스테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문화 체험으로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거라고 했다. 그동안 하고 싶어 했지만 막상 참여하려고 하니 생소해서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먼저 봉은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 놓고 법복으로 갈아입었다. 어색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편하고 시원했다. 모두 함께 사찰을 순례한 후에 108 배를 했다. 마지막에는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했지만 힘을 내서 끝까지 해냈다. 그리고 나서 ㉠ 발우공양을 했다. 발우공양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은 후에 마지막으로 그 그릇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명상 시간이었다. 명상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눈을 감고 앉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체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013 년 7 월 31 일

1) 이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_\_\_\_\_

2) ㉠ 발우공양은 무엇입니까? \_\_\_\_\_

3)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다. ( )

(2) 이 사람은 힘들어서 108 배를 끝내지 못했다. ( )

## 한국 사회와 문화

# 문화 달력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매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를 알리는 문화 달력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서울시에서는 매달 문화 달력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그리고 소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메일 로도 발송해 준다. 서울시 문화 달력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 등축제' 등의 다양한 소식이 공지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www.chf.or.kr](http://www.chf.or.kr))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의 문화 행사 정보 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Qo`shimcha mashqlar

1. ‘(으)ㄴ/는 척하다’를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바꾸세요.

- 1)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빌려 주기가 싫었다. (돈이 없다)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_\_\_\_\_ .
- 2)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나가기 싫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싫어서 \_\_\_\_\_ .
- 3)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다. (괜찮다)  
많이 다쳤지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_\_\_\_\_ .
- 4) 그 사람이 하는 한국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다)  
못 알아들었지만 창피해서 \_\_\_\_\_ .

2. ‘- (으)ㄹ 뻔하다’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 1) 가: 주영씨,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하는 거 아니가요? ( 지나치다)  
나: 아, 맞네요. 얘기하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 뻔했네요.
- 2) 가: 카일러씨의 아이는 딸인데 왜 남자 아이 옷을 사세요? ( 잘못 사다)  
나: 그래요? 딸인 줄 몰랐어요. 도현 씨가 말해 주지 않았더라면 옷을 \_\_\_\_\_ .
- 3) 가: 그 우유 상한 것 같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 배탈이 나다)  
나: 그래요? 이 우유를 마셨더라면 \_\_\_\_\_ .
- 4) 가: 그 가게에서 가방을 안 사기를 잘한 것 같지요? ( 후회하다)  
나: 네, 거기서 가방을 샀더라면 \_\_\_\_\_ .  
다른 데보다 2 배나 비쌌잖아요.
- 5) 가: 문을 안 잠근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큰일 나다)  
나: 아, 안 잠갔네요. 알리씨가 말해 주지 않았더라면 \_\_\_\_\_ .

[illegible]

## | 제 8 과 | 이웃과 지역사회

문법: (으)라고 하다

Fe'lga qo'shilib, buyruq ko'chirma gap yasash uchun ishlatiladi. O'zbek tiliga 'deb aytmoq', deb buyurmoq deb tarjima qilinadi.

- 재능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공부방에서 그림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 모금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할 거예요.
- 불우 이웃 돕기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라고 했어요.

1 보기와 같이문장을 완성하세요..

9 시까지 무료 급식소로 오세요 → 9 시까지 무료 급식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 (1)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주세요 → \_\_\_\_\_.
- (2) 소외 계층 돕기 물품을 전달하세요 → \_\_\_\_\_.
- (3) 무료 급식을 배급하세요 → \_\_\_\_\_.
- (4) 이번 주 일요일에 봉사하세요 → \_\_\_\_\_.

2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모이다

지키다

전하다

쉬다

놀다

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나: 다 같이 가야 하니까 늦지 않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1) 가: 어머, 웬 선물이에요?

나: 아, 이거 에릭 씨가 미영 씨에게 \_\_\_\_\_.

(2) 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나: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잘 챙겨 먹고 꼭 \_\_\_\_\_.

(3) 가: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돼요?

나: 10 시까지 가면 돼요. 시간 약속을 꼭 \_\_\_\_\_.

(4) 가: 아이는 어디에 갔어요?

나: 계속 심심하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놀이터에서 \_\_\_\_\_.

## 문법: 자고 하다

Fe'l yoki sifatga qo'shilib, taklif ko'chirma gapni yasaydi. O'zbek tiliga -lik deb aytmog deb tarjima qilinish mumkun.

A: 엘레나 씨도 오기로 했어요?

B: 네, 엘레나 씨가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A: 갑자기 여행을 왜 취소하셨어요?

B: 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서 가지 말자고 했어요.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반상회에 같이 갑시다.”

→ 옆집 친구에게 같이 반상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1) 여보, 내일 저녁에 영화를 봐요

→ 아내가\_\_\_\_\_.

(2) 주민 센터 앞에서 만나요

→ 윗집 아주머니가\_\_\_\_\_.

(3)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자

→ 에릭 씨가\_\_\_\_\_.

(4) 우리 내년에 결혼합시다 → 남자

친구가\_\_\_\_\_.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놀이 공원에 가다)

나: 네, 아이가 같이 놀이 공원에 가자고 했어요.

(1) 가: 어제 친구와 영화를 재미있게 봤어요? (보지 말다)

나: 아니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_\_\_\_\_.

(2) 가: 텔레비전은 잘 고쳤어요? (새로 사다)

나: 아니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_\_\_\_\_.

(3) 가: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장을 보러 가다)

나: 오늘 남편이 일찍 끝난다고 마트에\_\_\_\_\_.

(4) 가: 감기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보건소에 가서 맞다)

나: 아직 안 맞았어요. 오늘 아이와 같이\_\_\_\_\_.

## 듣기

에바 씨와 엘레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8

1)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바자회 물건 판매 수익금은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쓴다. ( )

(2) 엘레나 씨는 바자회에 안 갈 것이다. ( )

(3) 바자회에서는 헌 물건만 판다. ( )

2) 바자회와 관계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후원 물품

② 기부 물품

③ 판매 수익금

④ 급식 배급

## 읽기

다음 ‘불우 이웃 돕기 봉사 활동’에 대한 글을 읽고 답해 보세요

### 불우 이웃 돕기 봉사 활동

예전에는 연말 불우 이웃 돕기를 하면 대기업들은 성금만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성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대기업에서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봉사 단체를 만들어 직접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복지 시설 방문, ‘청량리 밥퍼’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판매 금액의 일부를 불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든 기업들도 있다. 이렇듯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모두가 더불어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작은 봉사 활동이라도 참여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요즘 대기업들은 성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도 한다. ( )

(2) 봉사 단체는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 )

2) 밑줄 친 ‘밥퍼’는 어떤 봉사 활동 같습니까?

① 쌀을 배달하는 봉사 활동    ② 무료 급식 봉사 활동

③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 활동



## 이웃사촌

이웃은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웃사촌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농경 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돕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다 보면 어느새 가까운 친척만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늘 이웃과 상의하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이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웃끼리 교류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름대로의 지역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고 친밀한 이웃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한국 사회와 문화

※ '-으라고/라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 |                    |                  |
|--------------------|------------------|
| 1. "심심할 때 읽으세요." · | · 옛이나 찹쌀떡을 선물한다. |
| 2. "질문 있으면 전화해." · | ·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  |
| 3. "시험 잘 봐요!" ·    | · 사진을 찍어요.       |
| 4. "감기 걸리지 마세요." · | · 따뜻한 옷을 선물했다.   |
| 5. "외로울 때 봐." ·    | · 병원에 잡지를 사 놓았다.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으라고/라고'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 손님들이 우리 집까지 잘 찾아 올까?

나 : 응,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약도를 보내 줬어.

1. 가 : 계단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질 것 같아.  
나 : 그래서 \_\_\_\_\_ 천장에 조명을 달까 해.
2. 가 : 이 쇼핑몰에는 놀이방이 있나요?  
나 : 네, \_\_\_\_\_ 작년에 놀이시설을 만들었어요.
3. 가 :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 : 네, \_\_\_\_\_ 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 가 : 무릎 보호대 예쁘네! 샀어?  
나 : 아니, \_\_\_\_\_ 아버지가 사주셨어.
5. 가 : 추운데 창문을 왜 열었어?  
나 : 공기가 너무 나빠서 \_\_\_\_\_ 열어 났어.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세요.

민성 씨: "우리 집에 같이 가요(가다)."

→ \_\_\_\_\_

지나 씨: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먹다)."

⇒ => \_\_\_\_\_

친구: "우리 주말에 같이 공부해요(공부하다)."

⇒ => \_\_\_\_\_

남자 친구: "같이 영화 볼까요(보다)?"

⇒ => \_\_\_\_\_

\*여자 친구: "우리 이제 그 식당에 가지 말아요."

⇒ => \_\_\_\_\_

Izoh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 제 9 과 | 고민과 상담

문법: (으)ㄹ까 봐

Fe'l yoki sifatga qo'shilib, ikki gapni bog'laydi, birinchi gapda nimanidirni tahmin qilib, ikkinchi gapda nimadir qilishni aytishda ishlatiladi. O'zbek tiliga" – dan havotir olib" deb tarjima qilish mumkun.

-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주무실까 봐 전화를 못 했어요.
- 한국어를 잘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까 봐 항상 긴장해요.
-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제가 만든 요리가 맛이 없을까 봐 걱정이예요.
- 면접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1 보기와 같이 간접화법으로 바꾸세요.

건강이 나빠지다 /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하다

→ 건강이 나빠질까 봐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1) 관심이 있던 이성에게 거절을 당하다 / 걱정이 돼서 고백을 못 하다  
→ \_\_\_\_\_.

(2) 아이 학부모 모임에 지각하다 /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다  
→ \_\_\_\_\_.

(3) 부모님께서 걱정하다 / 아내와 싸운 것을 얘기하지 않다  
→ \_\_\_\_\_.

(4)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을 눈치채다 / 조용히 들어가다  
→ \_\_\_\_\_.

2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화가 나다 불합격하다 미끄러지다 자다 외롭다

가: 무슨 일인데 꽃다발을 사세요?

나: 어제 여자 친구 생일을 깜빡해서 아직 화가 났을까 봐 선물하려고요

(1) 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나: 내일 운전 면허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도 \_\_\_\_\_ 걱정이예요.

(2) 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왜 안 마셔요?

나: 늦은 시간에 마시면 못 \_\_\_\_\_ 잘 안 마셔요.

(3) 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방학 동안 어학연수를 가는데 여자 친구가 \_\_\_\_\_걱정이에요.

(4) 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면 밤에 길이 얼겠어요.

나: 내일은 꼭 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길이 얼어서 \_\_\_\_\_무서워요.

**문법:** (으)ㄴ 정도로

Fe'l yoki sifatga qo'shilib, qanaqa holatdaligini ko'rsatadi. O'zbek tiliga - darajada // miqdorda deb tarjima qilish mumkun

가: 토모 씨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나: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가: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와요?

나: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와요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 일이 많다 → 식사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요

(1) 받아쓰기가 어렵다 / 선생님의 말이 빠르다

→ \_\_\_\_\_.

(2) 걷기가 힘들다 / 다리가 부어서 아프다

→ \_\_\_\_\_.

(3) 하루에 세 시간도 잠을 못 자다 / 야근이 많다

→ \_\_\_\_\_.

(4) 잠시도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 일이 많다

→ \_\_\_\_\_.

2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배꼽이 빠지다      달고 살다      입에 불이 나다      눈이 빠지다      쓰러지다

가: 오늘 동창회 모임이 어땠어요?

나: 모두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

1) 가: 김치찌개 많이 먹었어요?

나: \_\_\_\_\_매워서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2) 가: 과자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벌써 5 개나 먹었네요.

나: 네, 군것질을 좋아해서 밥 대신 과자를 \_\_\_\_\_.

(3) 가: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나: 네, 며칠 밤새웠더니\_\_\_\_\_피곤해요.

(4) 가: 미안해요. 조금 늦었지요? 차가 많이 막혀서요.

나: 조금이요? \_\_\_\_\_오래 기다렸어요.

### 듣기

상호 씨와 메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09

1)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 (1) 메이 씨는 대학교 성적이 나빠서 고민이었다. (      )
- (2) 상호 씨는 메이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      )
- (3) 메이 씨는 상호 씨의 조언대로 한국 회사에 인턴을 신청할 것이다. (      )
- (4) 상호 씨의 조언이 메이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      )

2) 메이 씨가 고민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고향에 돌아가다.      ② 대학원에 진학하다.      ③ 회사에 취직하다.

### 읽기

다음 '상담 게시판' 글을 읽고 답해 보세요

Q: 안녕하세요? 불면증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여러 번 깹니다. 1 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요리 방법부터 청소 방법 등 생활 방식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남편은 저에게 어른이니깐 이해하라고만 해서 부부 싸움도 가끔 합니다. 그런 날에는 잠을 더 못 자고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 저요.

A: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김민수입니다.

불면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불면 증상이 3 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와 직접 상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밤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 2. 낮 시간에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산책을 규칙적으로 한다.
- 3. 취침 직전에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 4. 커피나 홍차, 녹차 등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한다.
- 5.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표, 다르면 X 표 하세요.

(1)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       )

(2)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담하였다. (       )

2) 어떤 고민에 대한 상담 내용입니까?

① 육아 문제

② 가정 문제

③ 건강 문제

## 한국 사회와 문화

# 찾아가는 이동 상담

이주 외국인과 유학생 등 서울 거주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 지원 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분야는 노무, 산재,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출국 만기, 귀국 비용, 상해, 임금 체불 보증), 의료 진료 외에도 금융, 인권, 정보 통신 등이 있다.

2013년 8월부터는 서울 시내 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상담을 실시하여 비즈니스, 주택임대, 유학정보, 취업정보 등 7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또는 서울글로벌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075-4114
-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13



Qo`shimcha mashqlar

※ '-을까/ㄹ까 봐(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_\_\_\_\_ 밤에 일찍 자요. (늦잠을 자다)
2. 저는 늦으면 \_\_\_\_\_ 미리 예매했어요. (자리가 없다)
3. \_\_\_\_\_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이가 다치다)
4. 혹시 \_\_\_\_\_ 걱정이예요. (시험에서 떨어지다)
5. 민영 씨는 \_\_\_\_\_ 밥을 안 먹는대요. (똥똥해지다)

※ '-을까/ㄹ까 봐(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 어디 가요?  
나 : 친구가 \_\_\_\_\_ 마중 나가려고요.
2. 가 : 왜 커피를 안 마셔요?  
나 : 이따가 밤에 \_\_\_\_\_.
3. 가 : 옷을 많이 입고 왔네요.  
나 : \_\_\_\_\_ 많이 입고 왔는데 별로 안 춥네요.
4. 가 : 무슨 일 있어요?  
나 : 교실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_\_\_\_\_ 걱정이예요.
5. 가 : 왜 음식을 버려요?  
나 : 산 지 한 달도 넘었거든요. \_\_\_\_\_.
6. 가 : 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나 : \_\_\_\_\_.
7. 가 : 김밥을 정말 많이 싸 왔네요.  
나 : 네, 운동한 다음에 \_\_\_\_\_ 많이 싸 왔어요. 좀 드세요.
8. 가 : 구두가 참 높네요.  
나 : 네, 그래서 \_\_\_\_\_ 운동화도 챙겨 왔어요.
9. 가 :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나 :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고 계신데 \_\_\_\_\_.

번역해 보세요

1. 오늘 돌아다니면서 구경 많이 했어요?     - 네,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2. 비가 많이 오네요.                                     - 네,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3. 저는 몇 번째 다시 볼 정도로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4. 이 시험은 아주 쉬워서 주학생도 모수 풀 정도였어요.

5. 저는 쓰러질 정도로 배가 많이 고파요.

6. 전 다 외울 정도로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

7. 이 비디오 클립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예요.

8.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아주 잘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9. 민수 씨가 술을 많이 마셨어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예요.

10. 민아 씨가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11. 놀랄 정도로 비싸요.

12. 햄버거가 싫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13. 그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요.

14. 그 사람은 놀랄 정도로 키가 커요.

15. 지금 울고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